

경남 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 22호

권두시 | 바래길을 읽다 | 김향숙 경남간호갤러리 | 사진 | 남경숙 경남간호인 |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박미경 팀장을 만나다 | 회원사업장 방문기 | 간호사만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현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 김미경 원장 회원 작품맛보기 | 장현정, 문서영, 김소라, 박용석 현장의 소리 | 이미화, 차남희, 이보람, 이화진 문화체험 | 이탈리아 여행기 | 김젼마 간호저널 | 이인숙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바래길을 읽다

하늘 날던 바다새가 화들짝 착지하다

더듬어 걸어온 바래길로 초상이 나부끼다

딩동댕 부푸른 꿈을 갯바람이 보듬다.

해무속에 가려진
감박이는 과문들

녹슬어 안보여도
노래는 흐르는데

마위섬
저 물결 위에
깃발 하나 꽂는다.



김향숙 /시조시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보건진료소장
남해군간호사회, 2016년 공무원문예대전 시조분야 장려상 수상(행정안전처장상 수상)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 22호



『경남간호』 제22호는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경옥
/경남간호사회 회장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올해 만이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 법적 지위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간호발전』을 비전으로, 경남도민의 높아지는 건강요구도와 전문간호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추어 간호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간호 인력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과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전국지부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권역센터에서 교육 및 취업연계 사업과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하여도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도 새로운 간호정책에 발맞추어 신규간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년 이하 등록회원들의 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당선된 회원과 동료, 선후배가 함께하는 ‘간호사 Cheer Up’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분회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증진과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초청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남간호』 제22호는 우리 회원들의 글과 사진, 그림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과 활동을 조명하고 발전하는 경남간호인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이 회지는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간호』 제22호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성명숙 홍보·편집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소중한 내용으로 채워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한 경남간호사회를 지지합니다



조순옥
/중경회장

지난해는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회원들과 함께 성공리에 기념행사를 치뤘었습니다. 기념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도 간호사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호는 이렇듯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학문이며 과학이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직업이기에 어떤 분야보다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간호사 법적 지위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간호발전」을 경상남도간호사회의 비전으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간호현장에서의 활발하게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 우리 경남간호사회가 보다 우뚝한 위상과 위치를 갖게 되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운리를 비롯한 전문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간호 현장에 적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환자들의 안녕을 지키는 일은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고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런 활동을 담아내며, 회원 상호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또 회원들의 소식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듣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남간호』를 2015년도에 복간하였고, 올해 다시 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작업이며, 반드시 이어가야 할 일하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간호』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 결속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임을 명심하고,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상남도간호사회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발간되는 『경남간호』의 더욱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경상남도간호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경옥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이사, 각 산하단체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표지이야기
2016년도 초청강연회 참석자와 함께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 22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이경옥
 발행일/2016년 12월 31일
 편집장/성명숙
 편집위원/강선희, 권은시, 김은희, 윤덕점, 이인숙,
 손경희, 김영란(사진)
 주소/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바래길을 읽다 | 김향숙

- 2 발간사 | 이경옥 | 경남간호사회 회장
- 3 격려사 | 조순옥 | 증경회장

6 경남간호갤러리 | 사진 | 남경숙

|경남간호人|

- 8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박미경 팀장을 만나다



회원사업장 방문기

- 14 간호사만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현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 김미경 원장



회원작품맛보기

- 20 도자기공예 | 장현정
- 21 서양화 | 문서영
- 22 시 | 걸음 | 김소라
- 23 수필 | 후회없는 선택 | 박용석

현장의 소리

- 28 신규간호사에게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 이미화
- 31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촉망받는 간호사 | 차남희
- 35 내가 해주고 싶은 5가지 이야기 | 이보람
- 39 간호사에게도 간호사가 필요하다 | 이화진

문화체험

- 42 이탈리아 여행기 | 김젬마

간호저널

- 46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 이인숙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 50 2016년 분회 주요소식
- 54 2016년 분회 주요소식
거제시간호사회·거창군간호사회·김해시간호사회·남해군간호사회
밀양시간호사회·사천시간호사회·양산시간호사회·진주시간호사회
창녕군간호사회·창원시간호사회·통영시간호사회·합천군간호사회

63 간호법 개정 소식 | 개정 의료법

64 편집자 레터



●작가노트

우리는 희망으로 왔고 희망으로 갑니다.
모든 미래는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고통의 삶도 그 다함의 죽음도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이 바로 희망이고 희망의 온도는 36도 5부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만,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36도 5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남경숙 대동대학 간호과 졸업, 울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 마취전문간호사로서 현재 김해뉴욕치과 마취과장으로 재직 | 아름다운미소사진전 대상 | 매일어린이사진공모전 대상 | 창원사진공모전 은상 | '36도 5부' 출판 기념사진전시회, '살살이 춤' 기획사진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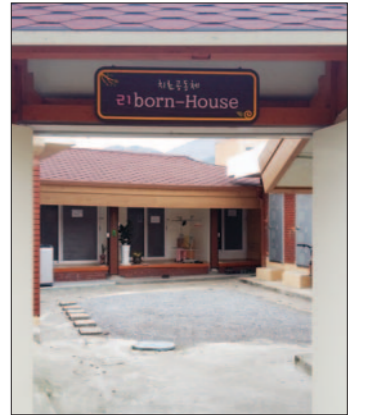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대상자를 리드하는 박미경 팀장의 하루는 누구보다 빠르게 흐른다. 입소자들의 일상을 체크하는 소소한 일부터 센터의 운영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하다. 혹여 여태까지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금주를 하던 누군가가 다시 음주를 할까봐 긴장되고 초조하게 흐른다. 오늘 그를 보면서 간호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바로잡을 사회의 모퉁이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한다.

| 경남간호인 |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박미경 팀장을 만나다

1993년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14년간의 정신보건간호사 임상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간호를 위해 중독재활시설 '리본하우스' 개소를 주도하였다.

리본하우스(Re-born House),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알코올중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미경 팀장(정신보건간호사)은 2016년 7월 13일 알코올 중독자 재활시설 리본하우스 개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래 알코올 중독자 밀집지역이었던 A여인숙을 리모델링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생활 훈련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알코올중독재활시설은 전국에 16곳이 있지만 부산·경남에서는 리본하우스가 유일하다.



대상자들과 소통의 시간

2016년 2월 경남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100년도 넘은 A여인숙을 리모델링하여 방 12개에 10~15명이 입소해 생활할 수 있는 리-본하우스를 준비했다.



리-본하우스 리모델링 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리-본하우스 개소식 현장(테잎 커팅식)

리-본하우스는 2011년 김해시의 민원에서 시작되었고 김해낙후지역개선사업을 통하여 2012~14년 서상동 A여인숙의 방 1개를 빌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식사 제공뿐 아니라 가정방문을 통한 중독상담 및 직업연계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하지만 술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매일 싸움이 벌어져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이 출동하는 등 술을 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김해낙후지역개선사업은 더더욱 중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리-본하우스를 추진하게 됐다.



김해시간호사회 후원의밤 특별한 행사에 리-본하우스에 사랑나눔 릴레이로 후원해 주신.

박미경 팀장은 김해시간호사회, 김해시보건소, 경남공동모금회, 장유 대성교회, 라이온스클럽 등 여러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김해시간호사회가 주최하는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본하우스 소개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들이 보태져 조금씩 힘이 생겼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리-본하우스 개소식에서 사업설명을 하는 박미경 팀장

2016년 2월 경남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100년도 넘은 A여인숙을 리모델링하여 방 12개에 10~15명이 입소해 생활할 수 있는 리-본하우스를 준비했다.

3월 30일에는 알코올 중독자 3명의 입소와 함께 정식 개소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했다. 리-본하우스는 입소자들이 오전 6시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일상 생활훈련, 인지행동,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소자들이 직접 식사준비 및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게 도왔다.

4월 30일에는 한 달간 단주한 입소자들이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하기도 했다. 첫 외출을 보내면서 입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로 음주 유무를 확인하자 Zero로 나오면서 모두 단주를 잘 지켜 기뻐던 마음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입소자 B(62) 씨는 한 달 내내 밥을 안 먹고 술만 먹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고 2013~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술을 끊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단주하고자 하는 동기와 리-본하우스 생활을 통해서 오랜 시간 단주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몇 번의 음주충동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마다 리-본하우스의 직원 및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이겨냈으며, 현재는 단주 9개월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다른 입소자들도 자신의 전문기술을 살려 일자리를 찾고, 연락을 끊었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등 조금씩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김해낙후지역개선사업을 통하여 리-본하우스가 만들어 지기까지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다. 김해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간호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배운 모든 것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자 한 노력들은 헛되지 않았다. 2016년 11월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는 영광도 있었다. 2003년에 정신보건 간호사 전문 과정을 마치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활약을 꿈꾸며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라는 기도문처럼 지금도 소명으로 생각하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리-본하우스는 계속 현재진행 중이며, 아직 예산, 인력 부족, 부채 등의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처럼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기다림을 필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기다려 준다면 리-본하우스라는 이름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입소자 B 씨는 한 달 내내 밥을 안 먹고 술만 먹는 등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다. 하지만 단주하고자 하는 동기와 리-본하우스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단주를 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위기 때마다 리-본하우스의 직원 및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이겨냈다.

리-본하우스 입소자와의 상담



간호사로 소명을 다하고 배운 모든 것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자 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고 2016년 11월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박미경 팀장의 하루는 누구보다 빠르게 흐른다. 입소자들의 일상을 체크하는 소소한 일부터 센터의 운영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하다. 혹여 여태까지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금주를 하던 누군가가 다시 음주를 할까 봐 긴장되고 초조하게 흐른다. 음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순식간이기에 늘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챙기며 마음으로 지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삶이 만만치 않았기에 어려웠던 시간들에 의지가 되었을 술! 그것은 처음에는 위로였겠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주도의 형태로 두지 않고 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녔을 것이다.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대상자를 리드하는 박미경 팀장!

오늘 그를 보면서 간호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바로잡을 사회의 모퉁이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는 이 땅이 더 맑고 밝아지기를 기대하며 길을 나선다.

글. 편집부



회원사업장 방문기

간호사만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현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김미경 원장님을 만나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직까지도 과연 그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들을 잘 섬기기에 늘 부족함만 느껴진다.”
며 겸손함을 보이는 김 원장.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더 아프고 힘 없고 외로운 분들을 보듬는 사람들은 ‘역시나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 가득한 사람이구나’는 생각을 새론의 김미경 원장님을 만나고 오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치매, 중풍,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의 현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듯, 요소요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행보도 나날이 발전한다. 어느 곳에 있든 간호사는 그 몫을 잘 수행한다고 여기며,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한 부분을 떠올리며 초겨울 늦은 오후 진주에서 창원(마산 합포구)을 향했다. 병원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간호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또 다른 한 세계의 직업인이 되어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창원 마산합포구 원월동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은 주간보호 할머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대였다. 밝은 모습들로 ‘새론’의 문을 나서는 할머니들께 작별인사를 한 후, 필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환한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김미경 원장님을 만났다.

김미경 원장은 2010년도에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설, 2012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개설, 2014년에는 인터뷰를 간 현 위치에 주야간보호센터 1호관(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을, 이후 2015년에는 1호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골목 아랫동네에 주야간보호센터 2호관(아랫동네 주야간보호센터, 새론2호관)을 개설하여 현재 두 곳에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김미경 원장

김미경 원장은 마산 토박이다. 1993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간호학적 지식과 사회복지학을 융합한 지식이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13년간 마산성모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결혼 후 병원을 이직하고 육아를 하면서 장기요양 관련 및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후 5년간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전임강사로, 6년간은 병무청 공익요원 전문강사로, 노인요양원과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해왔으며, 지금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인근 대학원 간호학과 진학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학구파 간호사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의 인력구성은 대상자들이 복합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 간호사 4인(방문간호사 2인, 주간보호 담당간호사 2인), 사회복지사 5인(방문요양복지사 2인, 주간보호 복지사 3인), 방문요양보호사 50인 등의 많은 인력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원장의 1일 주 업무는 많은 직원의 인력 관리, 대상자 상담, 가족관리, 센터총괄관리를 하다 보면 언제 하루가 다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

사업배경 및 동기

2008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대상자와 인력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를 일찌감치 얻고 2006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과 정책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김 원장은 평소에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섬김 인간관계, 호스피스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봉사자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대학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서도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어르신들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방문간호를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가족수발 통합서비스도 하게 되었는데, 호스피스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기에 현재 까지도 이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다.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파악한 그들의 욕구는 다름 아닌 소박한, 그러니까 편안하게 평소 지내던 곳에서 평소 먹던 것을 먹고 지내며, 평소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지는 잠에 천국가는 것, 이런 작은 소망이 바로 대상자들의 소박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서 편안한 삶,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을 지탱하는 사람으로 지켜드려야겠기에 방문

요양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수발을 하게 했고 목욕도 도와드리고, 집으로 간호사도 파견하여 병원방문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거처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상의 업무가 되었다고 한다.

집에 머무는 것이 움직임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지루한 곳이 될 수 있는 낮 동안은 거동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주간보호를 개설하였고, 현재는 통합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한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시·군·구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를, 그 외 기타 사업으로 자원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연계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기관으로서 인근 지역의 많은 직장인, 대학생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오고 있으며, 특히 창원대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지역사회간호학 임상 실습지로 연계되어 가정간호, 주간보호, 방문간호와 관련한 간호사의 역할을 지도하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 실습을 위해 보건소에 실습들을 많이 나가나 입원율, 병원 외래 방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문간호, 가정간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기에 간호교육계의 시각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용 봉사

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를, 그 외 기타 사업으로 자원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연계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 중인 대상자들

때로는 집에 머무는 것이 움직임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지루한 곳이 될 수 있어 낮 동안은 거동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주간보호도 개설하게 되었고, 현재는 통합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어르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7세의 남자 어르신이다. 그는 당뇨발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기억력은 물론 판단력 또한 많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처음에는 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적응을 잘 못했지만, 점점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인지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도 곧잘 참석하였다.

입소하고 3개월이 지날 무렵,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수사진 찍어주기' 활동을 나왔는데 이때 참여하여 액자에 넣어드린 영정사진도 받고, 그다음 주에는 미용봉사자들의 미용봉사로 머리도 다듬고, 매주 금요일 있는 센터 내 목욕서비스도 받고는 월요일 오겠다며 환한 모습으로 센터 문을 나갔다. 일요일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던 상태에서 그대로 먼 나라로 가셨다고 했다. 그분을 자는 잠에 보내드렸다 생각하니 참으로 보람이 느껴졌다. 또한 가족들도 장례식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같이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사업이나 기타 미래에 대한 계획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계획, 저의 미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상자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업이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라고 말한다.

먼저 꿈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제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실에 반영해 간호사 특유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기에 항상 대상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미래를 꿈꾸고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후배간호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당부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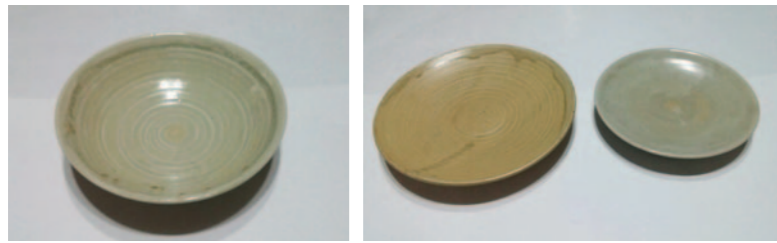
“대학시절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 경험, 특히 봉사경험, 봉사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일보다 사람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일 중심의 사람이 되기보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불어 어울려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간호사인 것을 실감한 기회였다.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라 했던 권정생 작가의 얘기가 떠오른다.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간호학이라는 학문이야말로 최상의 학문이고 철학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는 확신을 한 번 더 가져보게 된다.

곳곳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많은 간호사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여서 행복한 사람들로 더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앞장서는 길을 찾아 나서는 간호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글. 김은희/편집위원



작가노트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에 지쳐갈때쯤 저에게 뭔가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던 중 우연히 들린 지역의 축제에서 물레를 돌리시는 선생님 모습에 반해 도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심보다는 제가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예'라는 취미는 내일을 시작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네요.



장현정 사천시 가천보건진료소 근무



무제 | 34x25cm | oil on canvas

작가노트

있는 그대로의 사물 묘사보다 그들이 품어내는 색감과 느낌에 내 감정이 더해질 때가 더 즐겁다. 화려함과 순백 정취가 붓에 녹아든 듯 어우러짐이 좋았다.



문서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71병동 수간호사

걸음

김소라 / 장유누가병원

새하얀 눈길 위로
 커다란 발자국 하나, 둘 새겨진다

세상은 하얗고 어여뻐 마음이 부듯이 차올랐다

내딛는 작은 발 휘청 눈속에 빠진다
 커다란 발자국을 밟으며
 기우똥 기우똥 옮기던 걸음
 어느새 이만치 멀어졌다

고개를 들어 뒤를 보니
 저 혼자 뛰어다닌 눈길에 숨이 찬다
 고개 들어 옆을 보니
 그제야 줄곧 바라보던 얼굴이 소중한다

꼭꼭 눌러가며 곱게 발자국을 남겨본다
 느리게 느리게
 뒤따르는 걸음이 기쁘다

후회없는 선택

박용석 / 국립부곡병원

2016년 4월 경남 창원 소재 국립부곡병원에 취업한 지 3개월 된 간호사입니다. 올해 38세로 나이로 보면 임상경력 10년 이상 된 시니어이지만, 2014년도에 간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규입니다.

비록 늦게 간호사가 됐지만 간호사로 전향한 것은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한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 * *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마친 후 식품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신축 공장으로 발령받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공장에서 책상, 의자, 프린터 등 작은 사무용품부터 사물함, 세탁기, 공장부지 정리 등 시설물을 준비하고, 4대 보험, 품목제조 신고 등 인허가 업무와 근로자 채용, 급여 등의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일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개월간 본사에서 일을 배웠지만, 처음 해보는 실전이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귀가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고 사무실 바닥에서 자는 날도 부지기수였지만, 새로 발령받은 분들과 협동하여 하나하나 처리해나갔습니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다다’
피천득님의 수필 ‘인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말과 함께 소중한 인연마다
희망을 주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분들은
장기 입원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하는 환자분들과의
인연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회사 생활 중 부딪친 관공서 사람들과 회사 관리자들의 불합리한 처사에 실망도 많았지만 ‘사회란 이렇게 거칠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거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대강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1년 뒤 공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다시 취업준비를 하여 보험회사에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업무 부서에서 보험 인수심사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IT부서와 협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더라이팅이라는 보험 대상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원봉사를 적극 권장하여 봉사활동을 나갈 기회가 많았는데 자원봉사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일을 계기로 이렇게 보람된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출신 직원에게 일을 하다가 도움받은 일이 몇 번 있었고, 정기적으로 신체기관과 질병에 관해 교육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분야 전문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름 즐겁고 보람된 회사생활이었고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장래희망인 교사임용을 준비하기 위해 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도 공부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년 정도 전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실제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사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경쟁률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특정과목은 임용 예정 인원이 아예 없어 수험생들이 시위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늦게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여 5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또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됐고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 게 후회됐습니다.

그때 희망을 던져준 건 아내였습니다. 현직 간호사였던 아내는 남자간호사는 수요도 있고 전망 있는 직업이니 한 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편입준비를 하고 간호대학에 학사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 나는 학생들과 지내는 것도 문제였지만, 생소한 의학용어로 진행되는 수업내용을 따라가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거나 팀 과제로 다른 학생들과 논의할 때 제대로 답변도 못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왕 받을 들여놓은 거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과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했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노력하는 모습에 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30대 중반 나이와 편입생이라는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대학병원에 입사해 원하던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첫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주간의 실무교육, 9주간 병동 근무와 동일한 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원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아내, 자녀와 떨어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갖은 노력을 다했고 total care를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간호사를 머릿속에 그리며 힘든 병원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소위 태움이 만연한 병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입사 4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 절망했고 특히 가족들에게 매우 미안했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알아보면서 정신과 간호사는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공을 살려 나아갈 길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과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간호대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즐겁게 실습하던 기억이 있어 300병상 규모의 정신과 병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짧아 처음엔 업무가 미숙했지만, 잘할 수 있다는 주변 분들의 독려 속에

서 잘 적응하였고 환자분들이 대화와 행동교정을 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신과 병동은 특성상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데 병동 환자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업무에도 재미를 느끼며 일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여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을 때에는 괜찮다가 퇴원 후 투약을 거부하고 가족분들도 돌보기 힘들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치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인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으로 이직하였고 정신과 환자분들이 체계적인 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이 잘 유지되어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국립부곡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비록 정신질환으로 사회의 편견과 마주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와 훈련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및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언론에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피천득 님의 수필 '인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말과 함께 소중한 인연마다 희망을 주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분들은 장기 입원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환자분들과의 인연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로서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일하고 있습니다.

* * *

KFC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는 운영하던 식당이 망하고 무일푼이 된 65세에 재출발을 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실직을 반복하다 58세가 되어서야 '쇼생크 탈출'로 유명배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보고 하루 24시간에 대입하면 제 나이는 오전 8시 반입니다. 보통 직장 출근 시간이 9시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다니고 간호학과에 편입해 다른 분들보다 늦게 간호사가 됐지만, 간호사란 직업은 누구보다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을 아직 멈추지 않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늦게 간호사가 됐지만,
간호사란 직업은 누구보다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①

내가 환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드려야 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시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잘하고 있다며 말씀해주시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시던 장은주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일 년 뒤에 들어올 저와 같은 신규에게도 이렇게 선생님과 같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규간호사에게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미화 /창원파티마병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파티마병원 신경과에서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든 신규간호사 이미화입니다. 이번 '간호사 CHEER UP' 현장 체험수기를 응모하면서 신규간호사로서 많이 힘들어하던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던 장은주 선생님에 대해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 * *

약 9개월 전에는 파티마병원 강당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취업 준비생에서 불과 6개월 전에는 이제 갓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Care'를 중요하게 여기며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국시 합격과 동시에 신규간호사로서 선생님들께 기본적인 핵심술기 뿐만이 아니라 투약, 환자에게 대하는 자세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 손이 느려서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투약 준비하는 것, V/S, 간호 초기평가 등 손이 느렸고, 일을 할 때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여서 간호사실에서 다음 근무하는 선생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을 너무 못하는 제

자신한테 너무 속상하여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무를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집에 가시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먼저 커피 한잔하자고 하시던 분이 장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는데도 저희 집 앞까지 같이 오셔서 커피 한 잔을 사주시면서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이 느린 저에게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조금 더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평가도 좀 더 많이 해본다면 URO 환자는 5분이면 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해주시고, 신경과 환자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시는 등 그 당시에 일을 너무 못 해 속상해하는 저에게 신규기간 당연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신규일 때도 일을 못 해서 혼날 때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직 병동에 적응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 혼나다 보니깐 미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의 따뜻한 말과 커피 한 잔이 저의 생각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그치면 더 느린 저에게 느려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생기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무하면서 다양한 환자들 또한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환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병동 간호사를 꿈꾸던 저에게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신 할아버지 치료를 위해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사회와의 연계를 해드리고, 수시로 기저귀 보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 늦어진 흡인에 대해 할머니가 원할 때 흡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간호사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가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기저귀를 제때에 갈지 않아 기저귀 발진이 생겨 심해지는데도 잘 챙겨주지 않고, 간호사가 같이 보자고 해도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기저귀를 보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또한, 환자 초기 평가를 하는 중 환자의 아내분이 지난 기록에 다 있다고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마다 화를 내는 비협조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아 혼자서 눈물 흘리는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온몸에 기운이 빠지며 내가 생각한 간호사 일이 이런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입원은 간호사님이 해야겠다며 요플레를 챙겨주시던 보호자 분이 있었고, 정말



환자분께 많이 해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고 하며 각종 과자와 커피, 음료, 당노를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가끔 저혈당 빠지는 것 때문에 챙겨 다니시던 주머니 속 사탕까지 받으면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주신 따뜻한 말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물과 따뜻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특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팀 트레이닝으로 3호실을 다 보던 날엔 할머니가 아침에 잘 잤다고 하시면서, 걷기도 조금은 잘 걸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 할머니는 몸이 더욱더 많이 부어있었고, 말하기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까지도 예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고생이 많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요구르트라도 주라고 하시면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O2 Nasal prong까지 유지하고 계셨고, 웃을 힘도 없이 누워계셨습니다. 많이 아프시면서도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던 할머니의 고우시던 미소와 말씀은 너무 감사해 잊지 못할 것이고, 더 열심히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히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신규간호사로서의 5개월 동안의 생활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로, 비록 다른 대학에서 모여 서로 알고 지낸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든 일을 공유하고,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열심히 알려주시며 도와주시는 모습에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생각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지만, 내가 환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시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잘하고 있다며 말씀해주시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시던 장은주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일 년 뒤에 들어올 저와 같은 신규에게도 이렇게 선생님과 같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제 자신을 많이 키워야 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학생 실습 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는 간호사, 신뢰가 가는 간호사,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다시 되묻는다면 상대 입장이 된다면 받고 싶은 간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늘도 저는 환자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간호사 생활은 순탄하게 항상 밝고 맑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촉망받는 간호사

차남희 / 동영서울병원 6병동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내던게 된 동영서울병원 여기서 2월부터 정식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고시 보기 전부터 6병동으로 배정받은 나는 다른 신규간호사들과 다르게 수간호사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가고시 잘 치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벌써 병원 직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2일 새벽 5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고시장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부터 문제 유형이 바뀌어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걱정을 하고 있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바라보는 순간 좀 어렵다고 느껴졌고 시험을 다 치른 후 떨어지진 않을까 라는 걱정스럽고 마음도 많이 불안하고 있는 찰나에 국가고시 합격 발표날에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은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모님과 친구와 같이 축하한다고 잘했다는 소리에 제 자신에게 '너무 고생했다'라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 합격한 후 정식으로 병동으로 첫 출근 날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동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과 선배간호사 선생님께서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일 또한 저에게 쉽게 가르쳐주시고 병동에 적응하게끔 배려해주시는 마음에 저 또한 열심히 배우고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첫 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동에는 하루하루마다 정말 한시도 쉴 수 없는 톱니바퀴 돌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동에서 하루에도 몇십 명의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닦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동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병동입니다. 선생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같이 다니면서 보게 되니 간호사는 정말 꼼꼼하게 환자 상태나 간호 처치를 잘 확인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5R 왜 중요한지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중요성을 더 실감 있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실수로 간호 처치를 잘못된 경우 환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 배울 때 잘 배우자 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과 업무 처리를 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꼼꼼하게 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을 며칠 관찰 후 제가 직접 임상에 투입되었을 때 너무 많은 주사나 경구약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놀라운 점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하루의 하나씩이라도 약물에 대해 공부를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지금 현재도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현재는 병동에 있는 약물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약만 보아도 이약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 하게 되니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동은 앞에도 말했듯이 surgery part라서 수술 전, 후 처치 care가 중요시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나왔지만, 임상에서 직접보고 선생님이 처치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적인 질문을 받아도 아무 말을 못해 혼도 나고 했지만 그 후 조금씩 환자에게 설명하는 부분과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께 많

이 혼나고 지적을 받아 조금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랬구나 라는 생각에 고마웠습니다.

저희 병동 특성상 압박 골절이 되거나 신경이 눌려서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많은데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누워서 왔던 어르신들이 벌떡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골절환자 열상 환자분들이 병동에 입원한 동안 치료받으면서 상처가 깨끗하게 나아 퇴원하실 때 보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퇴원하면서 간호사 너무 고생했고 잘 낮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고 가시는 모습에 간호사만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동에는 하루하루마다 정말 한시도 쉴 수 없는 톱니바퀴 돌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동에서 하루에도 몇십 명의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닦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신규간호사로 병원에 들어가면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많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12번 정도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복이 많아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것에 정말 다행히 주위 같은 신규간호사보다는 힘든 점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고 못 느낄 정도로 편하게 지내고 있어 제가 전생애 좋은 일 많이 했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한 번쯤 웃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입사한 지 5개월째...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은 나지만,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동에서 일의 업무를 책임감 있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촉망받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햇병아리 신규로써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acting 업무를 마스터하고 charge training을 시작해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걱정하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acting 업무를 하면서 내가 정말 마스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 일을 하면서 단순 전립선염으로 입원한 환자분이 갑자기 MI가 발생하여 응급으로 3차 전원을 가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 처음으로 응급상황이라 당황하고 있는 중 같이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확인 후 응급처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며 단순 질병으로 입원하는 분이더라도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 안주하지 않고 더 세심히 환자를 관찰

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 일을 하면서 내가 결코 잘하거나 많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네가 같이 해줘서 환자분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것 같아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Charge training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선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보리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사하여 어리버리 하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나가리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학생 실습 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는 간호사, 신뢰가 가는 간호사,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다시 되묻는다면 상대입장이 된다면 받고 싶은 간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늘도 저는 환자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간호사 생활은 순탄하게 항상 밝고 맑음입니다.

모든 환자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간호사들 파이팅입니다!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 간 배려심이었다.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힘들면 급여가 높아도 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취업하던 동료들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던 것일 텐데 저것도 모르냐?'라고 비난하기보단 꼼꼼히 알려주고 '일하느라고 힘들죠?'라고 매번 기운 나게 해준 배려심이 많은 동료간호사를 만나게 해준 것이 내게는 또 하나의 복인 것 같다.

내가 해주고 싶은 5가지 이야기

이보람 /마산청아병원 5병동

1. 아이의 '어머'에서 '간호사 선생님'으로 돌아오다

쉽 없이 병동간호사로 4년간 근무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일한 만큼의 시간을 쉬게 되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없이 행복했지만, 일에서 얻는 성취감과 월급명세서가(일한 댓가는 늘 달콤하다) 늘 그리웠다. 힘들게 공부해서 딱 면허증이 장롱 속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늘 걱정하였다. 사실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재취간호사 교육을 받기엔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많았다. 아이가 3살이 되던 무렵, 어린이집을 보내고 마산에 중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집 근처의 병원으로 이력서를 넣고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보류하던 차에 집과도 출근거리가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 상근근무자로 일하게 되었다. 일하기 전, 걱정을 많이 했었다. 가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아이가 아프면 일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남편과 아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으로 일하기 전까지 밤샘 고민을 했었다.

일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은 병동의 동료간호사와 수간호사 선생님의 배려로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샘간호를 하고 또 일하는 동안에는 환자들의 호소를 해결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감과 육체적 피곤함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료간호사의 조언에 힘을 얻었다.

수없이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하던 나에게 아이가 하나니 아이가 크면 괜찮아질 것이라 계

속 일할 수 있게 손잡아주던 수간호사 선생님과 동료들 덕분에 힘내며 씩씩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8개월 전, 집에서 쉬며 태만하던 나에게 병원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다.



2. 육씨 간호사에서 싹싹한 간호사가 되다

신규간호사 때에는 오로지 내 안위나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컸었다. 환자의 호소들이 모두 다 불평불만으로 들려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어

주지 못하고 통명스럽게 받아줬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

입원한 환자들이 내 이웃이자 가족처럼 느껴졌다. (단, 예의 없고 누가 봐도 이기적인 환자들은 좋은 맘으로 대할 수 없기도 했지만)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연세의 환자들이 입원하면 혹여나 불편한 사항이 없나 귀 기울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무적으로 대하기보단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웃으며 대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환자가 몸이 힘들어 느닷없이 짜증을 내고 통명스럽게 대해도 '많이 힘들어 투정 부리는 거구나. 더 위로해주고 잘 대해드려야지.' 하는 맘이 더 컸다. 아파서 칭얼거리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내 아이처럼 달래고 옆에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재잘거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간호사로서의 직무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만큼이나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요즘이다.

3. 속 깊고 정 많은 동료들을 만난 나는 복덩이인가 보다

일하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은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였다. 역시나 3년을 쉬었다 보니 주사를 놓을 때 감각을 잃어버리고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느라 몸이 힘들었다. 신규간호사 때로 돌아간 것처럼 새롭고 서툴렀다.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을 때까지는 몸과 마음이 고생을 했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건 바로 옆에서 꾸짖지 않고 지지해주는 동료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 간 배려심이었다.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힘들면 급여가 높아도 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취업하던 동료들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던 것일 텐데 저것도 모르냐?'라고 비난하기보단 꼼꼼히 알려주고 '일하느라고 힘들죠?'라고 매번 기운 나게 해준 배려심이 많은 동료간호사를 만나게 해준 것은 내게는 또 하나의 복인 것 같다.

4. 재취업을 망설이는 당신! 일단 일을 해보면, 고민한 만큼 값진 것을 찾게 된다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 평생직장이 될 것만 같았지만, 결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맘처럼 쉽지 않은 것이 '재취업'이었다.

일을 하면서 업무시간, 가족들의 생각, 임금 등을 고려해야했고 무엇보다 일을 하기 전에 내 발목을 잡던 여러 걱정들을 떨쳐버려야 했다. 아이가 어려서 자주 아플텐데 그럴 때마다 돌봐주지 못하고 혹여나 많이 아플 때에는 업무를 빠지는 일이 생길 텐데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만 같았고 일을 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식사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말이다.

그때마다 '막상 일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가족들이 해준 진심 어린 조언도 사실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오지도 않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말이다. 조금 더 고민을 적게 하고 일을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이다.

망설이는 것은 주저하게 만들고 용기 내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변한 건 가족들이다. 사실 나를 위해 가장 희생해 준 것도 배려해주는 것도 가족들인 듯하다.

아이는 나의 직업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남편도 가사일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쓰며 시부모님과 부모님도 아이가 아픈 상황이 생기면 두말없이 달려와 주신다. 가족들의 배려와 동료들의 배려심이 아니었다면 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감사해 하며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

5. 더 나은 근무환경을 꿈꿉니다

재휴간호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업무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자가 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곧 일의 끝마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을 하면 곧 그만두겠네... 출산을 하니 몇 년은 쉬겠네... 하는 불편한 시선들은 다시 현장으로 일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재휴간호사들을 현장으로 투입시키고자 교육하는 기회도 있지만, 사실상 거리상 시간상 제약이 많아 망설여지는 경우도 다수가 아닐까 싶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망설여지지 않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졌으면 한다.

임상에서 간호사를 지칭하는 말이 ‘아가씨’, ‘어이’, ‘이모’, ‘야’, ‘저기요’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의 인식이 혹은 응대를 받기를 원하거나 아랫사람 다루듯 예의 없는 환자들의 말투나 행동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싶다.

서비스나 친절이 강조되는 요즘이지만, 호칭부터가 관계의 시작인데 그 시작점부터가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든다. 병동에 일하면서 자주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자신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거나 욕박지르거나 심하게는 욕설을 내뱉는 환자나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 간호사로서의 사기는 바닥을 치는 것 같다.

간호사로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만큼 그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환자들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한다. 상호간 신뢰는 이런 배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깐 말이다.

중소병원에서 일하면서 인원이 부족해 쉽없이 이일 저일 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결혼, 출산 등의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혹여 반대로 업무상 힘이 들어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얻는 장점들도 분명 많겠지만 아직도 교대근무의 열악함과 업무의 부담감을 보상받지 못해 퇴사율이 많은 것 같다. ‘간호사라는 이미지가 ‘환자간호’라는 업무에만 움츠려 있지 않고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우연찮은 기회로 몇 명의 직장동료와 2박 3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일상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삶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남이 아니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였으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다.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투덜뷔던 일 그저 시간낭비라고 여겼던 잡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했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있었다.

간호사에게도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화진 /경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56병동

시작은 ‘안녕’ 그리고 ‘고마워’

북쪽의 매서운 겨울에서 벗어나 도착한 남도의 겨울은 포근했다.

38개월의 경력직,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지낸 나는 얼뜨기 간호사였다.

정도 이상의 과중한 업무 냉소적인 동료들 사이가 익숙해 날 선 긴장감이 가득했다.

“안녕하십니까?” 바짝 긴장한 나의 첫인사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안녕’, ‘안녕하세요’라는 너무나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표정들과 친근한 모습들로 이 병동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 병동 업무에 빠르게 적응을 해나갔다.

소화기내과 병동의 밤은 언제나 불안하다. 선임 선생님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신없이 바빠서 밤 동안 모두 도와가며 일을 끝냈다. 그리고 아침에 왔던 문자 한 통 ‘화진아, 어제 밤 동안 너무 바빴는데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선임의 일은 내 일보다 먼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는데...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충분한 간호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한 달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병동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돌고 돌아 만난 가족 같은 분위기

“꼭! 가족 같은 분위기의 병원에서 일할 거야.”

간호학생 시절 친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였다.

대학병원 실습을 통해 바쁘고 과중한 업무로 긴장감에 날 서 있는 병동의 분위기를 봐왔었고, 결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즉, 첫 직장은 나에게 그런 행운을 주진 않았다.

그러나 신께서 날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가족 같은 병원 없다!’ 라는 생각을 바꿔주셨다.

처음 입사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일을 다 마쳤는데 다들 집을 가질 않는 것이다.

아니 왜 일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앉아서 뭐하는 걸까?

분명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새 일이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대화가 많아지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활력적인 에너지로 가득 해진다.

수선생님부터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양하며 단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1박 2일 병동 야유회, 병동 체육대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며, 단합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병동의 초석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 병동은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데요,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신규간호사의 이 한마디가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직장동료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있다!

우연히 직장에서 만난 동료는 그만두면 다시 볼 일 없는 사이,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떠나보낼 사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연찮은 기회로 몇 명의 직장동료와 2박 3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일상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삶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남이 아니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였으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다.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사이였다. 우리는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였고 이

관계는 그저 쉽게 지나칠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투덜댔던 일, 그저 시간낭비라고 여겼던 잡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했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있었다.

서로를 내비치는 진솔한 공감 덕분이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사람 덕분이었다.

이 물론 또한 단합을 장려하는 병동의 분위기와 관리자의 독려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

첫 여행의 어색함은 이제 3번의 여행을 거쳐 4번째 여행의 기대감과 설렘을 기다리고 있다.

‘제 자리 찾기’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

많은 경력직 간호사들이 다시 병원을 떠나고 있다.

숨 막히는 병동 분위기, 관리자의 불신, 의사와의 갈등 등으로 동요되는 마음에 지탱하기 힘든 한계에 처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함께 들어온 동기들이 있었지만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도 분명히 마음 둘 곳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이 나를 이곳에서 ‘제 자리 찾기’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제는 나도 엄연한 한 병동의 구성원이 되었다.

새로 시작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리라.

이탈리아 여행기

김쌤마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

자연이나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 대도시 여행에 지쳐 힐링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다. 다음에 또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토스카나'를 외칠 것 같다.



이탈리아 포지타노, 김쌤마(왼쪽)와 김미혜



이탈리아 포지타노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밀라노,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떠올린다. 우리 또한 대학교 졸업 후에 떠난 유럽 여행에서는 이 네 도시가 포함된 경로를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7박 9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에 흠뻑 빠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한 TV 프로그램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의 고향, 토스카나(Toscana)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우리의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은 바로 토스카나!

이탈리아의 중부에 위치해 있고 와인으로 유명한 토스카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뉴문', '레터스 투 줄리엣', '토스카나 웨딩' 등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교통편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가는 여행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렌트카 여행!!



이탈리아 포지타노



사투니아 온천 가는 길의 토스카나 도로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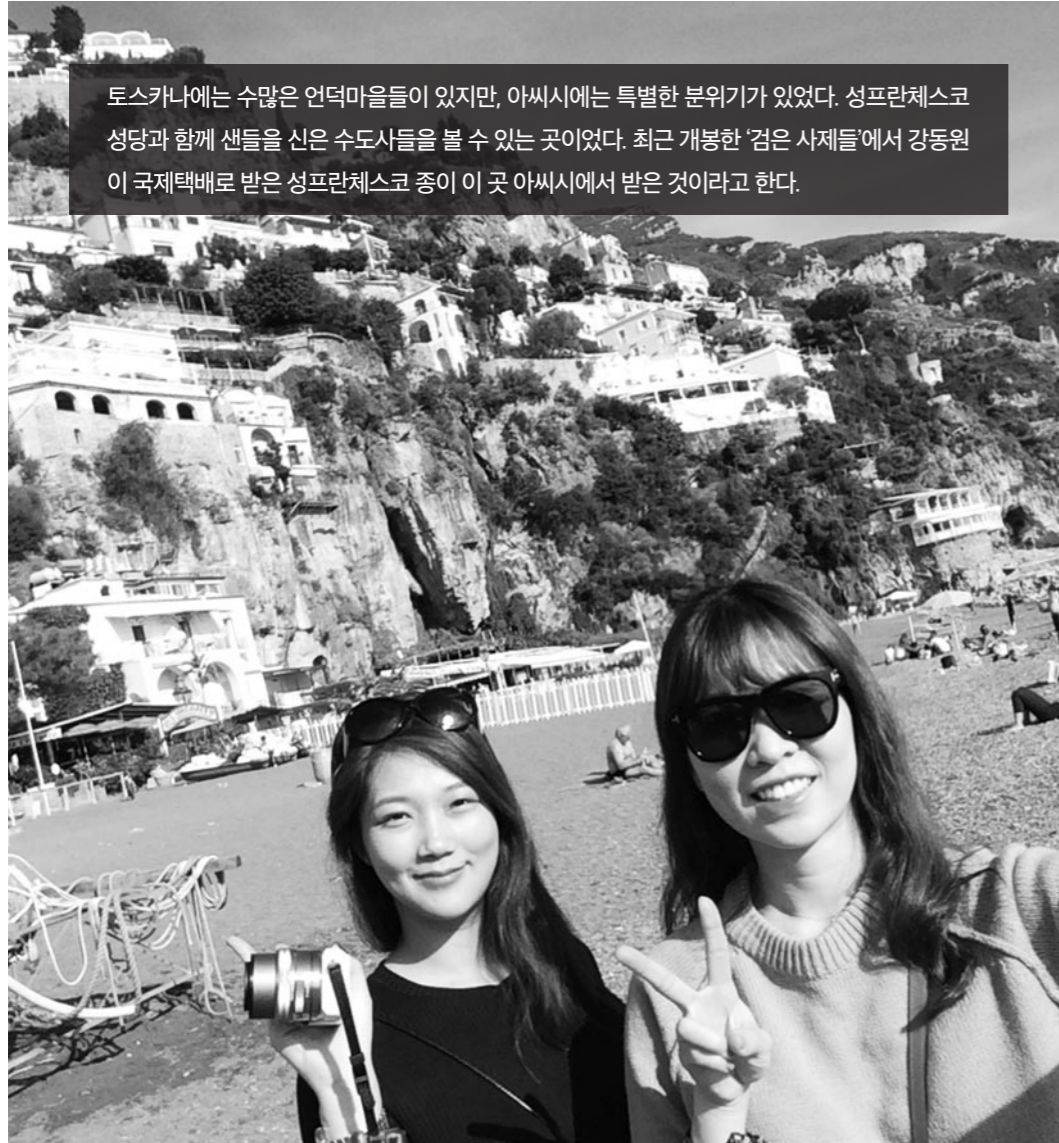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우리의 경로는 첫날 남부 투어를 한 뒤 로마 Termini역에서 차를 렌트해서 토스카나 지방을 보고난 후 피렌체에서 다시 차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출국 전 가장 믿을만한 HERZ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로마 Termini역에서 차를 인수하였다. 우리가 예약한 차는 Fiat 500이었는데 우리가 인수 받은 차는 Fiat panda. 밟으면 RPM은 7까지 올라가지만 속도는 30km, 핸들은 한없이 가볍고 흔들려 운전자를 순식간에 김 여사로 만들어주었다. 물론 우리가 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차를 타고 복잡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한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알고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벤치마킹한 것이 이탈리아의 고속도로라고 했다.

2시간 40분을 달려 도착한 우리의 첫 목적지는 노천온천 'Saturnia'. TV에도 소개되었던 곳으로 1년 내내 따뜻한 유황온천을

우리가 인수 받은 차는 Fiat panda. 핸들은 한없이 가볍고 흔들려 운전자를 순식간에 김 여사로 만들어주었다. 물론 우리가 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차를 타고 복잡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한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알고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벤치마킹한 것이 이탈리아의 고속도로...



토스카나에는 수많은 언덕마을들이 있지만, 아씨시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다. 성프란체스코 성당과 함께 샌들을 신은 수도사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최근 개봉한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이 국제택배로 받은 성프란체스코 종이 이 곳 아씨시에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남부 포지타노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다.

그냥 발만 담그고 올 생각으로 수영복을 챙기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쉬웠다.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Agriturismo'라는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Agriculture'와 'Tourism'이 합쳐진, 말 그대로 여행객을 위한 농가 민박으로 와이너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와인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피엔자에 있는 농가 민박에서 묵게 되었는데, 감히 비교한다면 호텔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우리나라의 펜션 느낌이었을까 ...

이날 저녁은 근처 몬탈치노에서 사온 살라미, 치즈, 토마토와 와인으로 저녁을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맑은 햇살에 깨어나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정말로 이탈리아에 스며든 기분이었다.

피엔자를 떠나 아씨시로 가는 길에 와인으로 유명한 몬테폴치아노에 들러 와인 맛을 보았는데, 달달하고 씹싸름한 맛이 부드럽게 잘 어우러져서 와인에는 문외한 우리들조차 정말 맛있는 와인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운전을 해야 해서 한 모금 밖에 맛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도착한 아씨시!!

토스카나에는 수많은 언덕마을이 있지만, 아씨시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다. 성프란체스코 성당과 함께 샌들을 신은 수도사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최근 개봉한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이 국제택배로 받은 성프란체스코 종이 이 곳 아씨시에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아씨시에서 1박을 하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될 정도로 아씨시는 다른 토스카나 마을들과는 다른 분위기와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에나로 향했다.

시에나는 중세에서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건물들이 정말 인상적인 곳이었다. 중세풍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덧 다다르게 되는 캄포광장, 이곳에서 잊지 못할 샤케라또를 맛보았다. 샤케라또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에스프레소와 얼음을 넣은 뒤 각테일처럼 흔들어서 각테일 잔에 나오는 커피. 주문할 때 '샤케라또'라고 했더니 알아듣지 못하고 혼드는 시늉을 하자마자 웃으며 알아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시에나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토스카나 여행은 끝이 났다.

TV 프로그램을 보고 정한 여행지이지만 토스카나는 기대 이상이었다.

자연이나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 대도시 여행에 지쳐 힐링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다. 다음에 또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토스카나'를 외칠 것 같다.



로마 젤라또 가게 앞



로마 길거리에서 카페라떼 한 잔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이인숙 /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삶을 돌보는 사람들’이란 표현처럼 간호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생애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웰다잉(Well-dying) 또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 연명의료 결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합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유념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제처, 2016).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법 제2조)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하며, "호스피스"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임종의 과정에 있는 대상자의 삶을 돌보는 연명의료 실무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사(義士)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義士)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환자는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담당의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권유한다. 더불어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 Directives)는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義士)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義士)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의사 2인(담당의사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한다)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한 결정은 의사 2인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며,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임종기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을 고



려할 수 있으며, 환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돌봄계획'을 환자와 보호자와 상의한 후 제공해야 한다(대한의학회, 2016).

임종과정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들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 및 환자 가족은 임종과정이 임박하기 전에 환자가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자신의 소망과 결정을 밝힐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를 의료진과 함께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적인 임상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 혹은 관련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보다 평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며 환자의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2016

<참고문헌>

1. 대한의학회(2016).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안). 대한의학회. 2016.10.17.
2. 법제처(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accessed : <http://m.moleg.go.kr/mobile/lawinfo/recentRevisionLaw>.
3.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accessed : <http://www.law.go.kr>.



2016년 본회 주요소식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0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2층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208명 및 내외빈 등 총 2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개회사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격려사와 함께 2015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3일 창원 KBS홀에서 개최한 '경상남도간호사회 70주년 기념행사 및 제2회 경남대회'에 대한 결과보고도 있었다.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1,300여 명의 회원 및 학생, 내외빈이 참석하였고, 기념수상과 축하공연 등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12월 9일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 국회통과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총회 수상자로는 전금숙 고학보건진료소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 임인숙 하동우리들병원 간호부장과 성기진 창녕한성병원 간호부장이 경상남도지사상, 박춘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교육파트장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수상했다. 2016~2017년도 임원선거 결과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재선되었고 러닝메이트로 박형숙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제1부회장, 조순연 경상대학교 대의협력팀장이 제2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김현옥 이사 등 12명의 이사와 윤덕점, 이삼순 감사를 선출했다.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 제83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간호사 법적 지위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간호발전'을 주제로 2월 25일~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이경옥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5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간호취업지원 사업보고와 간호 관련 의료법 국회통과 경과보고가 있었다. 2016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2016~2017년 임원선거 결과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연임되고 러닝메이트인 서순림 제1부회장, 김남초 제2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제45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5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45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으로 5월 25일 제25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경남대학교 윤은숙 교육위원의 사회로 회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상대학교병원의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및

사전보고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2편, 거제시간호사회 1편, 국립부곡병원 1편, 마산의료원 1편, 삼성창원병원 1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편, 총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원 참가상을 수상했다. 이경옥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논문 발표 후, 진주보건대학교 백명화 교육위원의 강평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간호행정자 세미나 I 개최



도내 병원 간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간호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간호행정자 세미나 I'이 개최되었다. 6월 15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 지하 3층 퍼스트하우스에서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영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이해 및 운영사례'와 문강분 유엔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의 '일·삶 균형과 간호리더십'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시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 관련 사례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건의하였다.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보건교사(의료인) 금연지도자 전문가 과정'을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산청한방콘도에서 2박3일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보건교사 39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원 이수하였다. 27일은 '금연유도 및 상담기법'과 '금연



중 재흡연 방지 전략, 28일은 '간호사 금연교육'으로 순회보수교육과정, 29일은 '학교흡연예방 그룹토의 및 사례발표'와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주제로 체험학습 등 지난해 보다 심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학생 및 교직원의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위한 재흡연 방지, 금연상담사례 활용, 학교흡연예방교육의 운영방향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올바른 금연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목적으로 실시되어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의 평가 결과 87%가 매우 만족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제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제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8월 24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모유수유를 통한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유니세프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12일 14시부터 16시까지 개별 3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회일 기준 생후 4~6개월(2016년 1월 25일~2016년 4월 24일 건강한 모유수유아 90명(개월별 30여명)중 88명이 참석하였다.

의사검진, 발달검사, 모야애착 및 건강지수 등 심사를 거쳐 시상하였다.

시상은 경상남도지사상 김해시 4개월 박서준, 대한간호협회장상 창원군 6개월 김유빈,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 창원시 5개월 배승우,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하고, 아름상 4개월 조예찬 외 8명에게 상장과 상금 25만원, 보람상·행복상 등 66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그리고 11명에게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이븐플러스·존슨앤드존슨상·모유사랑상을 수여하였다.

심사 집계하는 동안에는 감성 레크레이션 및 행운상 추첨, 엄마사랑모유사랑퀴즈상 등 아가와 가족들이 함께 하여 즐거움을 나누었다. 또한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육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궁금증 해결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도 함께 하였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도 부스를 마련하여 '건강한 모유수유 릴레이캠페인'도 펼쳤으며 아가와 가족들을 위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마련하여 더욱 풍성하고 알찬 대회가 되었다.

간호사 Cheer Up 개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10월 6일(목) 전라남도 보성 녹

차밭에서 일반간호사와 분회 임원, 병원 간호부서장 5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간호사 Cheer Up」은 현 간호제도와 현장을 이해하고 회원들의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병원 간호 인력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도내 각 병원의 회원등록 5년 이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당선된 회원에 한하여 동료 또는 선후배 1명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 이경옥 회장이 '간호 관련제도 현안 논의 및 간호역량증진'을 주제로 특강하고 함께 녹차밭 트레킹과 순천만 갈대밭 체험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평가서를 통하여 대한간호협회와 분회에 대한 의식제고가 되었으며 동기간과 선후배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 실시



지리적으로 시군이 산재해 있고 좋은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요양병원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20일(목) 요양병원의 간호부서장 및 간호사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만앰배서더 창원 2층 빌라드룸에서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소윤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의 '인증유지와 QH활동사례'에 대한 특강과 유혜숙 시립마산요양병원 간호부장의 '요양병원 2주기 인증관련 자체평가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요양병원의 인증관련 최신정보 및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참석기관들의 사례발표 등 정보공유를 건의하였다.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보수교육 실시 분회 및 병원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15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이경옥 회장의 간호관련 현안과 간호인력취업교육 부·울·경 권역센터의 실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경옥 회장은 참석한 실무담당자들의 한 해 동안 수고를 치하하고 역량증진을 위하여 특별체험교육으로 '힐링 쿠킹 클래스'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보고, 실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2017년도 계획안에 대한 논의 후 특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초청 강연회



12월 6일 풀만앰배서더 창원2층 그랜드볼룸에서 내빈과 회원 및 간호대학생 총 110명이 참석하여 개최했다. '초청 강연회'는 2016년도 신규 사업의 하나로,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한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의 기회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본 행사를 통하여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이 있었고, 이어 이경옥 회장의 개회인사와 이순삼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이주는 창원대학교 교수의 'story of music' 피아노 연주를 결들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주는 교수는 뮌헨 국립음대와 잘쯔부르크 모짜르테움 음대 Magister 솔리스트 과정 수석졸업 및 뮌헨 국립음대의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로,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긴 곡들을 스토리로 기획한 공연으로 다양한 곡들에 대한 진지하고 진솔한 설명과 아름답고 힘찬 연주는 힐링과 감동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하였다.

이웃돕기사업



매년 대지역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여 왔다. 올해는 남해군, 양산시, 창원군, 통영시에서 추천한 분들이 이사회에서 선정되어 총250만원을 전달하였다.

2016년 분회 주요소식

거제시간호사회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방지 캠페인



거제시여성협의회가 주관하여 4월 15일 거제시 중앙로에서 실시한 거리 캠페인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사업으로 개최되었는데 거제시간호사회 회원과 거제여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어르신 행복잔치



10월 4일 거제여성회관에서 13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남간호사회의 예산지원으로 실시했으며 건강상담, 금연상담, 혈압 및 혈당측정등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르신께 제공했다.

회원들을 위한 특강

거제대학교 강당에서 11월 16일 회원들을 위한 특강 실시했으며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송년의 밤

12월 5일옥포에드미럴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40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간호사의 긍정강화'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거창군간호사회

2016년 제7회 정기총회



지난 3월 15일(화) 경남도립거창대학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영양 프로그램



2016년 6월 22일 1,000,000원의 예산으로 대성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여자중학교, 셋별중학교, 가조익천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50명은 해당학교의 보건교사 및 선생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메뉴로는 제육볶음, 멸치반찬, 일미무침, 과일(거봉, 바나나), 햄, 김 등을 제공하고 회원 11명 참석하여 봉사했다.

사과마라톤대회 건강축정

회원 및 간호과 학생(24명)이 9월 25일(일) 거창사과 마라톤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에어파스 음료 등을 제공했다. 이 행사에는 간호사회과 간호대학생들이 함께했다.

회원 단합 체육대회

2016년 9월 3일(토) 거창중학교 체육관에서 1,500,000원의 예산으로 회원 24명이 참석하여 회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김해시간호사회

제8회 정기총회



2016년 10월 19일 JW웨딩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허현점, 김현숙이 김해시장표창을, 신말임, 이인희 회원이 김해시간호사회장상을 받았다. 약 12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제21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의료지원

진례도자기마을 일원에서 10월 14일~23일 개최된 '제21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서 의료지원을 했다. 복음병원, 누가병원, 성모병원, 동남병원, 김해대학교, 우리여성병원, 김해중앙병원에서 회원 15명이 의료지원을 지원했다.

초청 강연회

JW웨딩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10월 19일 개최 되었다. 동남병원 이국희원장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임원연수

해운대팔레드시즈에서 2016.1.23.~24 양일간 임원연수가 있었다. 이경은회장 외 12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김해시간호사회 보수교육



JW웨딩홀에서 노인과 안전간호를 주제로 한 보수교육이 있었다. 교육은 6월 22일-23일(1차), 9월 21일(2차) 나눠 실시하였으며, 404명 회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웃돕기 의료비 지원 성금기탁

김해시청 시장실에 임원8명 참석하여 이웃돕기 의료비 지원성금을 기탁했다.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 기탁

2월 23일 가야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하여 간호학과 발전기금 기탁했다. 이경은 회장과, 이옥경, 권영채, 이인희 회원이 참석했다.

남해군간호사회

군립노인병원 봉사



11월 12일 남해군간호사회 임원 6명은 군립남해노인전문병원에서 식사도움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문화활동 영화 관람 및 정화활동



12월 3일 남해군 보물섬시네마 주변 환경정화활동(쓰레기 줍기)을 한 후 문화활동으로 함께 영화관람을 했다. 이 행사에는 남해군간호사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밀양시간호사회

밀양시간호사회 창립총회

사)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밀양시간호사회가 2016년 3월 19일 JK웨딩컨벤션센터에서 박일호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장, 이병희 도의회의원, 예상원 도의회의원,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 김연화 여성



단체협의회장,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장미희 밀양시간호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의 전문직간호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경남간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의 성장과 지역민의 건강 파수꾼의 역할 확장 및 질적 향상을 바라는 격려사와 박일호 밀양시장의 회원권익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간호인력 수급 당부와 간호발전을 바란다는 축사가 있었다. 창립총회에서 밀양시간호사회 초대회장은 장미희 밀양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계장이 선출됐으며 현재 180여 명의 간호사들이 밀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밀양시간호사회 건강걷기대회



밀양시간호사회장 및 임원들과 회원 54명은 친목도모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11월 19일 밀양시 아리랑길에서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힐링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사천시간호사회

초청 강연회



『환자가 안전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사회』라는 대간협의 비전하에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갖기와 친절하고 필요에 맞는 맞춤형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되었다.

1. 일 시 : 2016. 10. 15(토) 14:00~16:00
2. 장 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소강당
3. 참여인원 : 사천시간호사회 회원 100여 명
4. 주관/후원기관 : 사천시간호사회/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5. 행사명 : 제1회 사천시간호사회 초청강연 '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천시간호사회 나이팅게일 봉사단 활동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봉사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작된 이 행사는,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지

역주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상담 등을 통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것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이 행사는 사천시간호사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간호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회원들이 가진 문화적 역량을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색소폰 연주, 시낭송, 우리소리 등의 문화행사로 진행되었다.

- 3월 26일 경남도립사천노인요양병원 (노인환자 및 가족)
- 9월 24일 통양보건진료소(연호마을지역주민)
- 11월 26일 한마음병원(정신장애우)
- 12월 24일 삼천포서울병원(환자 및 가족)

양산시간호사회

이영순 양산시간호사회장 양산시장상 수상



이영순 경남 양산시간호사회장(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장)이 양산시의 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쓴 공로로 2015년 12월 31일 양산시장상을 받았다.

이영순 양산시간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양산시의 발전과 양산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의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 돕기 의료용품 지원 등 간호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8회 양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제8회 양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회장 이영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장)가 지난 4월 28일 342명의 양산 지역 간호사와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 간호사출신 심경숙 시



의원, 노환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모암홀에서 개최되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산시가 지향하는 사각지대 없는 건강복지도시와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산시간호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특강으로 '대한간호협회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양산시간호사회 양산 유채꽃 향연 환경미화 실시

양산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 20일 '2016 양산 유채꽃 향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장 인근 환경미화를 실시하였다.

양산시에서는 유채꽃 향연이 펼쳐지는 양산천 둔치 일대에서 '양산 유채꽃 향연'을 개최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이영순)는 2009년 창립 이후 양산시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용품 지원, 장학금 지급, 특강 개최 등의 간호봉사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호봉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기내 승객 생명 구한 이연경 간호사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간호사의 소식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양산시간호사회 소속 이연경 간호사는 지난 6월 24일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이륙을 기다리

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이 발생하자 자신이 간호사임을 알리고 달려갔다. 승무원에게 기내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 승객은 자발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 공항 응급구조팀에 인계됐으며,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이연경 간호사의 사연은 응급처치 상황을 지켜본 탑승객이 병원에 알려와 공개됐다.

양산시간호사회 특강 개최



11월 1일 양산시간호사회 주최로 '중간간부의 역할과 조직관리' 교육이 동양경제연구원 최문찬 원장의 강의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병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양산시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 및 일반간호사 73명이 참석하여 병원에서의 중간간부의 역할과 조직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수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병원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산시간호사회 이영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 양산시간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간호사회 우수 학생에 장학금 전달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이영순)가 지난 11월 1일 양산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3명에게 각각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양산시간호사회는 학교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동

원과학기술대학교 송민경부산대학교 하미희, 영산대학교 한수정 학생은 각 학교 관계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양산시에는 부산대 간호대학, 영산대 양산캠퍼스 보건 의료대학 간호학과, 동원과학기술대 간호학과 등 3개 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양산시간호사회 불우이웃돕기 물품 전달

양산시간호사회는 12월 21일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상약품과 구급함 56세트(100만원 상당)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탁하였다.

2009년 창립된 양산시간호사회는 창립 이후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결식아동 돕기 사업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용품 기탁과 양산시 관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호봉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간호사회 이영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호봉사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진주시간호사회

제5회 정기총회



5월 26일 진주시 간호사회는 동방호텔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경옥 경남간호사회회장, 진주시 여성협의회 회장이 참석하고 진주시 간호사회 임원 및 대의원 80명이 참석했다.

보수교육

2016년 10월 11일에서 14일까지 경상대학교 남명관 남명홀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인근지역 간호사 및 회원 41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의료봉사활동



10월 23일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주시 '좋은세상'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일반성면사무소에서 실시되었다. 진주시간호사회 이사 5명이 참석하여 300명의 지역민에게 건강상담 및 혈압, 혈당체크를 실시하였다.

간호관리자 간담회

11월 17일 진주시 간호관리자 간담회가 있었다. 갑을가든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진주시간호관리자 40명 참석하였고 해연 스님의 명상과 심리치료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관리자들은 매우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이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창녕군간호사회

어버이날 노인위안행사

2016년 5월 4일(수) 창녕시온요양원에서 '어버이날 노인위안행사'가 열렸다. 메모판 만들기, 카네이션달아드리기 및 다과회를 실시했다. 이사진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추석 명절 노인위안행사

2016년 9월 12일(월) 창녕시온요양원에서 '추석 명절 노인위안행사'가 열렸다. 선물전달 및 다과회를 실시했다. 이사진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정신건강 홍보활동(부곡온천제)

4월 3일(일) 부곡온천제 행사장에서 관내 지역주민 Z코드 홍보와 정신건강상담 및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이사 및 회원들이 함께하여 간호의 전문성을 지역민과 나누었다.

정신건강 홍보활동(유채축제)



4월 17일(일) 남지 유채축제 행사장에서 이사 및 회원들이 관내 지역주민 Z코드 홍보와 정신건강상담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초청특강

11월 25일 국립부곡병원 1층대회의실에서 창녕군간호사회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초당대학교 고문희 교수의-간호사의 자기이해와 리더십함양-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경남간호사회 이경옥 회장 외 창녕군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들이 함께 했다.

창원시간호사회

저소득층 세쌍둥이 가정 후원사업

"세쌍둥이 지원사업"은 2008년 창원시 최초로 세쌍둥이(딸)를 출산한 일용직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정에 매년 설, 추석을 맞이하여 8년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9월 9일(금) 김은자 회장은 세쌍둥이 보연이 엄마 설맞이 후원금(현금 20만원) 지원했다.

저소득층 및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팔용장날(4일, 9일 중 주말)을 맞이하여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및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2016년 하반기 총4회 실시하였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장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에게 실

시하였다. 2016년(약 400명) / 1회당 100여명에게 검진이 제공되었다.

진해보건소, 행복한요양병원, 동서병원, 파티마병원, 정다운요양병원, 예경병원, 진해세광병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MH연세병원, 삼일정풍병원, 한마음병원, 창원병원, 희연병원(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2016년(12명) / 1회당 3명이 참여하였다.

창원시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물품기증

나눔과 순환 그리고 참여를 통하여 낡거나 오래 된 물건을 기증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다시 필요한 물건을 다시 사가는 자원의 순환 활동을 통하여부의 편중과 빈부격차에 대해 서로가 이해하고 나누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원의 더 긴 순환과 유통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9월 10일(토) 아름다운가게(창원 용호점) 창원시간호사회 이사(15명), 병원·간호대학 관계자(3명), 간호학생(10명) 등 총28명이 의류, 도서, 가전, 잡화 등을 총1,224점 기증하였다.

수익금은 금3,626,000원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지역 야구단(NC다이노스) 성장 응원 및 친목도모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NC다이노스 구단"의 성장을 응원함과 동시에, 창원시간호사회 이사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께했다. 9월 27일(화) 마산야구장에서 창원시간호사회 이사, 감사 등 6명이 함께했다.

"클래식해설가 조윤범과 함께하는 창원시간호사회 힐링 콘서트" 개최

110만 통합창원시민의 건강실천 옹호자로서, 언제나 봉사를 다하고 있는 4,000명 창원시 간호사를 위한 힐링 콘서트 개최를 통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힐링 시간을 갖고자 개최되었다.



11월 3일(토) 18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창원경상대학병원(이정자출)총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였고 경남간호사회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통영시간호사회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환경정화활동



지난 5월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청소년 보건교육 경연대회 후원



2016년 8월 청소년 보건교육 경연대회 후원 및 시상식이 있었다. 후원금은 50만원이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2016년 7월, 11월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함께했다. 여성대회 참석 및 물품기증 및 희망나눔행사에 참석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16년 11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합천군간호사회

합천군간호사회 정기총회

합천군간호사회는 5월 24일 황토한우프라자에서 진남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29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2015년도 회계결산 및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016년도 어르신 행복잔치



합천군간호사회에서는 경상남도과 경남간호사회의 지원으로 9월 10일 합천군 쌍백면복지회관에서 어르신 15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행복잔치' 를 개최하였다. 치매예방체조를 시작으로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노년을 위한 건강교육과 민요춤, 색소폰 연주, 남도민요, 셋별 공연단의 공연 등 다양한 위안잔치가 벌어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건강상담과 간식, 생활

용품을 제공하였다.

금양마을 음악회 봉사활동



합천군간호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함께 하였다. '금양마을 주민음악회'가 7월 23일 내·외빈 및 합천군간호사회 회원, 합천군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농산어촌 마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한 2016년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된 금양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자리였다.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운영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민요 등을 배워왔다. 마을 주민이며 합천군간호사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경 간호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음악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기념선물을 전달했으며, 합천군간호사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먹거리부스를 지원하였다.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1) 64년 만의 간호사 업무 개정으로 간호사 법적 지위 향상

- 간호판단(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등 업무 신설
- *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이 신설됨.
- * '간호판단'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서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과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05년 간호법과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안 추진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것임.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신설 :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 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음.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 지도권 확보

-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됨.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업무 대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정하도록 하여 지방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임.

3)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이 남발 및 부실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개선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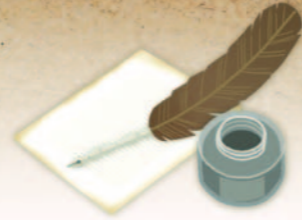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 통칭되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의, 원칙, 기준, 예산 지원 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신설

-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은 국가가 직접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함.

-의료법 제80조 제1항

편집자 레터



경남간호사회는 만삼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전문 의료인 단체이다. 간호사는 세상 곳곳의 그늘진 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듬고 격려하고 복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회원들은 아픔과 노쇠, 병마의 고통스런 현장에서 햇볕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긴급한 상황들을 대처하고 치유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간호 현장의 역동성은 간호사들을 조르고 채근하며 많이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간호』는 그런 숨 가쁜 의료 환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하고 지친 회원들의 영혼에 다가가는 한 방울의 상큼한 향수거나, 언뜻 부는 바람 같은 촉매의 역할을 꿈꾸며 2015년에 다시 복간되었다.

치열한 간호의 현장에서 피어난 결과물들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경남간호사회의 행보들을 알리며, 간호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하면서 경남간호인이 한 덩어리임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편집위원들은 찬바람 부는 남강변의 출판사에 앉아서 깨알 같은 글자들을 검토하고,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거듭한다. 제각각 일상의 삶은 모두 마찬가지로 같지만, 머리 맞대어 뜻을 모으는 이 일 역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CPR을 시행하는 것처럼 귀한 작업이라 여긴다.

여럿이, 그리고 함께!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며 세상을 지금 바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이런 작업들이 끊임이 없다면 언젠가는 조금씩 달라지리라 기대하며 『경남간호』 22호를 또 여러분 앞에 내 놓는다. 작품을 기꺼이 내어준 회원들과 간호 현장에서 오늘도 뜨겁게 대상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회원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빌며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위원 일동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2017년 8월 중 / 창원시 일원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한다.

이 대회는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모유수유를 통한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유니세프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의사검진, 발달검사, 모아에착 및 건강지수 등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심사 집계 동안에는 감성 레크레이션 및 행운상 추첨, 엄마사랑모유사랑퀴즈상 등 아가와 가족들이 함께하여 즐거움을 나눈다. 또한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육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궁금증 해결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도 함께 한다.



제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